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요건 강화된다

정부, 소득세법·중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자 나섰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을 원칙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연장선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중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

달 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중복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종전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얻은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2주

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p 많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많이 부과된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위 같은 경우 중부세도 합산해 과세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한 중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택 가액 기준도 신설된다.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되고 임대 기간에 따라 50% 또는 70% 수준의 장특공제가 부여되던 것이 임대 개시 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기존엔 다주택자가 전금 청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8·2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

약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개정 조치로 지난 8월28일 이후 양도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됐으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2년 미만 거주했을 경우엔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간의 적용 유예 기간이 설정돼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김영태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프 혁신성장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15일 파리 워푸알리페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협력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프랑스 중소벤처기업 대표, 투자자,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시장동향,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양국 혁신성장 방안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중소벤처기업간 무역역거래, 기술교류 등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위주로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진공은 프랑스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이날 창업진흥원, 코트리아와 함께 한·프랑스 스타트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프랑스 바이어와 투자자간 1대1 매칭상담, 기업공개(IR) 등을 진행했다. /김영태 기자

은행권 주택대출금리 계속 '상승'

우리·신한·농협은행 신규·잔액 0.01%p, 0.03%p씩 올려 KB국민은행 내부 비용 감소로 잔액 기준 금리 0.01%p 내리

지난달 코픽스 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NH농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KB국민은행 잔액기준 금리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9월 코픽스 금리는 신규취급액과 잔액기준 각 1.90%, 1.83%로 각각 0.01%p, 0.03%p씩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8~4.78%에서 3.57~4.77%로 0.01%p 내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0.01%p 상승했다.

금리가 높은 축에 속하던 KB국민은행 금리가 다소 조정되면서 5%를 향해 다가간 은행권 금리가 잠시 주

춤했다.

하지만 우리·신한·NH농협은행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올리며 전체 평균 금리는 한층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29~4.29%에서 3.30~4.30%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20~4.20%에서 3.23~4.23%로 바꿨다. 신한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9~4.54%에서 3.20~4.55%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변동했다.

NH농협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9~4.51%에서 2.90~4.52%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0~4.42%에서 2.83~4.45%로 올렸다. /김영태 기자

현대차, 한국車업계 최초로 레드닷 '올해의 브랜드' 수상

현대자동차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 최초로 '올해의 브랜드(2018 Brand of the Year)'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레드닷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상으로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매년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등 총 3개 부문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의 브랜드' 시상은 매년 3개 부문의 시상 결과를 종합해 1년간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창의성과 혁신적 디자인을 보여준 1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레드닷 어워드 최고의 영예로, 이상의 수상은 한국 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 한국 자동차 기업으로서 최초로 달성한 쾌거다.

현대차는 2012년 i30을 통해 처음으로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이후 제네시스(DH), i10,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넥쏘, 코나 등 다양한 차량들이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에는 제품 디자인(수송 디자인) 부문에서 넥쏘와 코나 2개 종이 분상(Winner)을 수상했고,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솔라티 무빙호텔'이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개의 상을 받으며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올해 1월 오픈한 브랜드 체험관인 '제네시스 강남'과 제네시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음향인 '제네시스 사운드'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는 등 올 한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2개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7개상을 수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2018 레드닷 어워드의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페터 제호(Peter Zec) 레드닷 회장은 "점차 포화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타 부문과의 협업, 브랜드 경험 제공을 이뤄냈다"며 "멋진 자동차 디자인뿐만 아니라 섬세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선보인 현대차를 레드닷 어워드 최고 영예의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소비자원, 영유아용 카시트 100명 중 17명은 잘못 장착

상당수 보호자가 영유아용 카시트의 사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카시트 관련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전국 7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비자 소비자 100명의 차량에 설치된 카시트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100명 중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하거나 단단히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 등받이 각도가 부적절한 경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녀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응답자도 2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목적지에 가까워서'(38명),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38명),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해서'(13명) 등의 이유를 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 60.4%로 90%를 웃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영태 기자

"지속적인 나눔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해 나갈것"

전북은행, 안골노인복지관 어르신 300여명 초청 '사랑의 점심나누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6일 인후동에 위치한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 초청, 제19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중원 전북은행 부행장, 정호천 안골지점장, 박제식 안행교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 박진만 가족사랑요양병원이사장 등 참여했다.

전북은행과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가족사랑요양병원 봉사자 20여명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용 주먹밥을 직접 조리해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념품과 한방소화제 등 선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중원 전북은행부행장은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식사를 통해 어르신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해졌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등 각 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날 봉사활동을 펼쳐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이 16일 인후동에 위치한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 초청, 제19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